

‘추입형 강급자’ 추락...2진급 자력형 대세

안정적 위치 확보불구 혼전경주 희생양
2진급의 과감한 경주운영 변수로 작용

벨로드롬이 연초부터 혼전의 연속이다. 2019년 하반기 등급 조정 이후 한 수 위의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됐던 강급자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기 때문이다. 승부거리가 짧은 추입형 강급자들이 이번의 빌미를 제공한 경주들이 많고, 자력형 강급자들도 신인들에게 밀리며 이번을 일으키고 있다.

●선발·우수급 추입형 강자 이번 주의보

1~3회 차까지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나타난 현상 중 눈길 끄는 부분이 추입형 강급자의 부진이다. 한 수 위의 기량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

우수급의 아구민(19기·32세·상남·A1)은 광명 3회차 첫날(17일) 경주에서 권정국(7기·44세·학하·A2)을 상대로 무난히 추입 우승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2일차와 3일차에서는 기대와 달리 연속 착외했다. 특히 2일차는 비교적 여유 있는 편성이어서 우승까지 기대됐지만 최악체로 평가 받는 최근식(16기·38세·미원·A2)과 하수용(13기·40세·팔당·A3)에게 1·2착을 내주며 쌍승 2376.8배라는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3일차 광명 10경주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선행에 나섰다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4위에 머물렀다.



2019 하반기 등급 조정 후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강급자들은 기대 이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과감한 경주 운영을 하는 2진급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며 주목 받고 있다.

선발급에서도 승부거리가 짧은 강급자의 수난은 계속됐다. 박석기(8기·45세·세종·B1)는 강급된 후 1회차 3일 동안 한차례도 우승을 못했다. 첫날에는 기존 선발급 강자인 엄지용(20기·32세·미원·B1)과 신인인 노형균(25기·26세·수성·B1)에 밀려 3착에 머물렀고, 2일차에서도 신인 윤진규(25기·25세·북광주·B1)에 밀려 준우승에 그쳤다.

●혼전 경주 늘자 2진급 반란 통했다

이처럼 이번이 속출한 데는 혼전 경주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2진급

의 과감한 경주 운영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최근 편성을 살펴보면 선발·우수·특선급 중 한 경주 이상 혼전 경주가 편성되고 있다. 우수급은 과거 안정적인 편성이 주를 이뤘지만, 1월에는 1~2 경주씩 난이도가 높은 각축 편성이 섞였다. 각축 경주는 시드를 받은 강자에게는 부담이지만 반대로 2진급 선수들은 기회로 여겨 공격적인 경주 운영을 펼친다.

3회차(17~19일)만 봐도 2진급으로 평가받던 우수급의 황정연(21기·29세·양주·A2), 최근식(16기·38세·미원·A

2), 여동환(11기·44세·창원B·A3), 김명섭(24기·28세·세종·A2)이 우승했다.

이번의 대다수가 자력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추입형 강자들의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예상지 '최강 경륜'의 설계석 편집장은 "추입형 강급자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전법의 한계가 있어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추입형 강자들이 고전하면 대부분 자력 승부형들이 그 수혜를 받으므로 훈련량이 많은 2진급 자력형 선수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그랑프리 4연패’ 정종진, 3000만원 기부

그랑프리 경륜 4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운 정종진(20기·33세·SS·김포)은 16일과 21일 광명시장실과 엄복동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해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광명 지역 저소득층 가정 지원과 자전거 쏘나무 육성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종진은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자전거 쏘나무들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종진이 소속된 김포 팀도 ‘2019 경륜선수 종합 표창식’에서 받은 훈련지부상 상금 2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광명 4동 사무소를 찾아 기부했다.

경륜경정-한체대 스포츠과학대 MOU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3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정병환 총괄본부장과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정현택 스포츠과학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과학대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대학교는 앞으로 양 기관의 시설 개방 및 활용,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 및 정보 교류, 학술강연 및 교육 등 재능기부, 학생들의 현장 교육 기회 제공 및 우수인력 발굴 등에 협력한다.

정용운 기자

경정 15기 3인방 “막내 16기에 질수 없다”

B1급 김지영·이인·정세혁 상승세

2018년 여름에 데뷔해 2년간의 실전 경험을 가진 15기는 그동안 역대 최약체급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2기 유석현(A1·34세), 13기 김민준(B2·32세), 14기 박원규(A1·27세) 등 신인 레이스 이후 빠르게 스타성을 보여준 기수별 대표 선수에 비해, 총인원 16명인 15기는 딱히 눈에 띄



는 선수가 없고 가능성을 보이는 유망주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영종도 훈련원을 졸업한 16기 신인들이 올 시즌 1회차부터 실전에 투입되면서 15기들이 의욕적인 승부를 펼치고 있다. 아직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다른 집중력이 돋보인다.

특히 주목할만한 선수는 B2급에서 벗어나 B1급에 오른 김지영(33세), 이인(33세), 정세혁(27세)이다. 김지영은 적은 체중을 무기로 인코스 운영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인은 빈틈을 파고드는 능력에 장점이 있는데 센터인 3코스에서 찌르는 능력이 탁월하다. 정세혁은 스타트에 강점이

있고 경합 상황에서 기존 선수에 밀리지 않는 선회력까지 갖췄다. 다만 지난 시즌 마지막 회차에서 받은 플라잉의 부담감을 올 시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비해 15기 최고 유망주로 꼽혔던 김경일(B2·32세)과 2018년 신인왕전 우승자 김태영(B2·30세)의 부진은 다소 아쉽다. 실력적인 문제보다 떨어진 자신감이 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동안 충분히 실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할만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정용운 기자



“GS칼텍스, KGC전 모든 세트 3~4점차 승리” 케이토토, 1월 건전화 이벤트 마감 임박

배구토토 매치 13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29일 오후 7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20시즌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KGC인삼공사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13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들은 홈팀 GS칼텍스의 완승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트 승리팀과 점수차를 맞히는 배구토토 매치 13회차 게임에서 1~3 세트별 예상 승리팀은 모두 홈팀인 GS칼텍스의 차지로 돌아갔다. 1세트에서 GS칼텍스는 77.30%를 획득해 22.70%를 기록한 KGC인삼공사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이어 GS칼텍스는 2, 3세트에서도 67.37%와 73.21%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원정팀 KGC인삼공사의 투표율은 각각 32.63%와 26.79%로 나타났다. 더불어 1~3세트까지의 각 세트 별 예상 점수 차이에서는 1세트(32.27%), 2세트(37.12%), 3세트(33.41%) 모두 3~4점차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GS칼텍스가 안방에서 KGC인삼공사와

대결을 펼친다. 현재 승점 33점(11승7패)으로 리그 3위에 올라있는 GS칼텍스는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는 반면, KGC인삼공사는 승점 21점(7승11패)으로 4위에 위치하고 있다.

리그 순위처럼 최근 분위기도 GS칼텍스가 좋다. 러츠, 강소휘, 이소영을 앞세운 GS칼텍스는 흥국생명에게 이어 도로공사에게도 승리해 2연승을 달리고 있다. 반대로 KGC인삼공사는 리그 득점 1위(583점)에 올라있는 디오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양 팀의 상대전적 역시 GS칼텍스가 2승1패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KGC인삼공사와의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지난해 12월 11일 경기에서도 3-0의 완승을 거둔 바 있는 GS칼텍스다.

리그 순위 및 최근 분위기, 양 팀의 상대전적에서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는 GS칼텍스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토트팬들의 예상과 같이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배구토토 매치 13회차 게임은 29일(수) 오후 6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0년 새해 1월의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Hello, 2020!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건전화게!'가 응모 마감을 앞두고 있다.

31일에 마감하는 이번 이벤트는 베티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건전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트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버즈(2명)와 나이키 벡워터(10명), 그리고 롯데 시네마 영화예매권(20명)을 증정한다. 또



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티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배틀 500개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의 당첨자는 2월 4일에 공지되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베티맨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토토 공식 페이스북 배구 ‘토토 라이벌’ 행사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 toto, proto)을 통해 국내프로배구 경기를 대상으로 라이벌간의 대결을 맞이하는 ‘토토 라이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9일 오후 7시에 벌어지는 2019~2020시즌 V리그 삼성화재-현대캐피탈전에 출전하는 박철우와 전광인의 득점구간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높은 득점을 기록할 선수와 득점구간(5점 이내)을 예측하면 된다.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박철우는 19경기에서 나와 292점을 득점 중이며, 현대캐피탈의 전광인은 276점을 올리고 있다. 공격 성공률의 경우 박철우가 51.75%이며, 전광인은 이보다 근소하게 앞선 52.17%로 나타났다.

정답을 맞힌 토트팬들 중 3명에게는 떡볶이를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오는 29일 오후 6시50분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31일에 발표된다.